

□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('14.7월)으로 '17년 부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(ORSA)*를 도입

* 지급여력제도(RBC)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

○ 보험회사는 '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(15개사*) 하였거나 시행을 준비중**

* (생보)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하나, 교보
(손보) 삼성, 현대, DB, 메리츠, 농협, 코리안리, 서울보증, KB, 흥국, 미쓰이

** 보험회사의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사회 승인을 통해 유예 가능

➔ ORSA 제도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,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ORSA 운영실태(도입준비상황 포함)를 점검

□ (도입회사 평가결과) ORSA 체제의 핵심사항*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, 10개사의 제도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
* 장래 경영계획을 반영한 재무건전성 영향 분석, 비계량위험을 포함한 중요리스크 평가, 자체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평가, ORSA 평가결과의 경영의사결정 활용 등

① (생보) 삼성, 교보, 미래에셋, 하나

② (손보) 삼성, KB, 농협, 현대해상, 서울보증, 코리안리

□ (유예회사 평가결과) 유예회사 중 17개사*는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확정하고,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① (생보) 신한, 흥국, 푸르덴셜, KDB, DB, ABL, 메트라이프, IBK연금, 라이나, 교보라이프, 처브라이프, 푸본현대

② (손보) AIG, 롯데, 악사, 알리안츠, 엠지